

점고 푸른 춤꾼 한마당

점고 푸른 춤꾼 한마당

2000 / 5

점고 푸른 춤꾼 한마당

점고 푸른 춤꾼 한마당

점고 푸른 춤꾼 한마당

점고 푸른 춤꾼 한마당

점고 푸른 춤꾼 한마당



2000.5.13~14 13(토) 4시 · 7시
14(일) 4시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 주최 : (사)민족미학연구소, 부산민주공원 • 문의 : 241-5898, 462-1016



햇살

안무 : 김지영 (신인출 6기)
출연 : 김지영, 안혜진, 양정미, 류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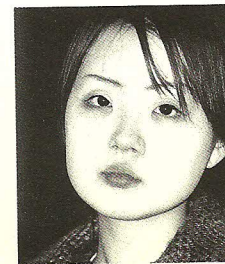
왜.... 늘 채워지지 않는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것일까.
나의 이 자리가 무의미해지려 한다. 또 누군가가 이야기한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靈舞

안무 : 최재원 (신인출 6기) 출연 : 최재원

밀레니엄 시대,
이와 공존하는 무당의 존재...
신령스러우면서도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
오늘, 나는 무당이 된다.



가린손

안무 : 서유미 (신인출 6기) 출연 : 서유미

점점 부패되어 가는 세상...
우리는 소외되어 간다.
그러나 그렇게 또 우리는 세상에 맞춰 살아간다.
모순되고 이중적인 인간의 내면풍경이 이리하다.



흔들리는 법

안무 : 조희정 (신인출 6기) 출연 : 송성아, 조희정, 손민수, 이은진, 윤시내

술을 빌어서 용감해지는 사람들...
나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이다.
깊어져만가는 어둠속에서 나오는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들.
그러나 자기 속마음을 비추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만남

안무 : 방영미 (신인출 2기 · 「하야로비」 단원)
출연 : 방영미, 이수지 (현대무용단 「춤」 단원)

서로 다른 성격과 생활과
세계관들을 맞추어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갈등,
그러나 마침내...



공무도하가

안무 : 허경미, 박지애 (신인출 2기 ·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출연 : 허경미, 박지애

여기에 나오는 두 여자는 공무도하가에서 남편을 따라 물에 빠져 죽었다는
백수광부의 아내와, 이를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불러 전하게 했다는 여옥이라는 여자이다.
이 두 여자의 만남을 가정하고 그 속에서 두 여인의 대화와 갈등, 화해를 통해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의 진정한 사회적 행복추구권을 반추해 보려 한다.

2000 / 5

젊고 푸른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

춤의 세기를 기약하는 작은 몸짓

다가오는 세기에 대한 밝은 전망속에는 세기말적 위기의식과 인간내면의 아지못할 불안이 잠복해 있습니다. 온갖 문화정보가 넘쳐흐러 자유분방한 삶을 한껏 누리다고 해도 자기내면과 우리의 주변은 황폐한 삶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공은 정치, 사회평등, 생태계 회복, 통일염원은 구두선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을 노래하고, 속편히 아름다운 춤을 추기엔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가상세계와 창조와 시대로 합니다. 몸을 통한 상상력과 창의력의 개발이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기생각, 자기삶을 스스로 제작해내는 자기연출의 시대를 맞고 있는가 하면, 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표현주체가 되어 춤과 노래와 연행이 뭉쳐나오는 페스티벌, 근원적인 세계로 회귀하는 큰 곳판이 지역 곳곳에서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생산하고, 몸으로 곳을 하는 춤꾼이 새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자명해졌습니다. 젊고 푸른 춤의 새내기들이 벌이는 이 작은 출판, 이 작은 몸짓으로 삶의 그늘을 걷어내기엔 벅찬 노릇입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소중한 것은 새 세기를 향한 밝은 전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공원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 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여러 뜻있는 이들이 그를 후원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때문입니다. 지난 3월 하순 여섯번째 신인춤제전의 작품 가운데 가려뽑아 다시금 올리는 이번 춤판은 일회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적인 창작의욕을 부추기는 민주공원의 정규적인 행사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새로운 춤의 세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2000, 5, 13.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채희완